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96홍해작전 4일째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인 홍해작전이 올해도 6월 6일에 시작됐다. 금년은 새 예배당 건축을 준비중이어서 의미가 새롭다.

이번 홍해작전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모범을 따라 행진하고 있다. 참가 성도들은 기도는 친히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과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생활에 비추어 자신의 기도생활을 돌아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에서는 기도요청카드를 제작,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등 기도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고 있다. 이 카드는 각자가 작성하여 기도를 부탁할 사람과 나누면 된다.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교환하는 가운데 서로 교제할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홍해작전은 현충일과 6·25가 있는 6월에 개최됨을 상기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홍해작전이 6일부터 시작했다. 참여한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의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다.

기도요청카드

요청일 / 1996. . .

이름	직분
소속	다락방
주소	

기도제목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5:16)

'96 홍해작전 기도제목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제 4대 장로 피택

- 이영기 · 성준경 · 김상철 · 김영준 -



지난 주일에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4명의 장로가 피택되었다. 24명의 후보가 공천된 이날의 투표는 주일1부 예배 후 가진 1차 투표에서 1명이 투표자의 삼분의 이 이상을 득표하여 선출되고, 찬양예배

후 가진 2차 투표에서 3명이 선출되었다. 새로 선출된 장로는 6월 15일부터 6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를 치른 뒤 오는 11월 교회실립감사일과 추수감사절을 맞는 주일에 취임 및 장립식을 갖게 된다.

제 4대 피택장로는 이영기(협동장로), 성준경(안수집사), 김상철(안수집사), 김영준(안수집사)이다.

▼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시옵소서"

지난 주일 1부 예배 후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한 표결을 행사했다.



창세기
강해



번영의 날에

(창세기 41장 41~57절)

이종윤 목사

요셉의 일대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신분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들은 총리가 된 그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천대받던 자리에서 왕이 끼워준 반지를 끼고 존경받는 신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피묻고 찢긴 옷이 아니라 금빛 찬란한 옷을 걸치고, 간음의 누명을 쓴 오욕의 자리가 아닌 황금마차를 탄 영광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는 17세에 팔려 온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는 13년동안 눈물겨운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양치기에 머물렀을 그가 천하의 애굽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1. 번영의 비결

그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의 비결이 있다면 그의 재능이었고, 그 재능의 비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덩이에서 총리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힘을 가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승리했을 때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성공한 후에도 그의 자세는 변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넘어집니다. 평범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번영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리한 후에 오히려 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도덕의 유일한 근원이 되십니다. 정부나 법원 또는 헌법이 민족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선한 것을 잃은 것이며 도덕성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요셉은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도 야합도 할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첫 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51-52절).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그가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2.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됩니다. 성공의 정상에 이른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으나 결국 번영의 날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낮아지셨으나 부활 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신 것이 공통점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유다에 의해 팔렸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었고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두 친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형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이방나라에서 성공하여 형제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출생하시어 자기 백성에게 거절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치리를 맡기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백성의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뜻을 행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과 같습니다. 요셉은 메시아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3. 예수님께 가라

창세기 41장은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왔다는 언급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이 예언하고

경고한대로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라 그가 이르는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인구폭발, 자원고갈, 환경파괴, 자연재앙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거나 운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애굽의 왕처럼 "예수께로 가라, 그가 이르는대로 하라"고 우리도 크게 외쳐야 합니다. 영적 기근을 당하는 자는 생명의 떡(요 6:35)이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목마른 자, 생명수되신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합니다(요 7:37).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거하십니다(골1:9). 주님께서는 안식을 약속하시며 초청하셨습니다(마11:28). 결코 우리에게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며 돈없이 값없이 오라고 하셨습니다(사55:1).

애굽 땅에 있었던 심한 기근처럼(57절) 오늘도 많은 이들이 기근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성경의 권위"

기독교신앙의 출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므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다. 성경저자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간임을 잊지 말자. 영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영감은 어떤 예술가나 사상가가 받은 영감과 다르다. 성경이 감동하여 기록케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었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므로 정확무오하며 영원불변하고로 권위가 있다.

모든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권위로 표준을 삼자.

선교사명 재점검... 회개와 치료의 장 마련

『선교·교육·봉사대회』서 교회성장과 질적 성숙의 길 모색

갖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회가 지난주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열렸다.

선교·교육·봉사대회는 이름으로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계속된 이 대회는 교회 내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치유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한국교회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장의 힘을 세계에 과시해 온 한국교회는 최근 성장세의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최근 받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회의 기본적인 축인 선교의 사명을 재점검하고 회개와 치료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이번 대회의 의미가 있다.

선교·교육·봉사대회는 다음 3가지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선교정책을 재정립하여 세계선교를 위한 부름에 응답하

는 교회가 되고, 둘째 교회교육을 활성화시켜 교회성장과 질적성숙을 달성하며 셋째 사회선교정책을 개발하고 사회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하여 나누는 교회의 상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교회 이종윤목사는 대회 2일째인 4일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특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여야함"을 밝히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고 보여주며, 거룩함을 지키며, 진리를 선포하고, 선교를 앞세우고, 연합을 지향하며, 많은 지도자를 양성해야함"을 강조했다. 또 이자리에서 이종윤목사는 "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등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즉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각각 잘 수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표어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출15:26)는 말씀을 내세운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역자, 장로 및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 등 3,000여 명의 총대들이 참가하여 개회예배와 함께 성찬식을 가졌으며 폐회때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대회기간중 선교분과, 교육분과, 봉사분과, 목회와정보분과 등 4개분과로 나누어 각 분과별 주제에 따라 발제와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목회와정보분과에서는 PC통신과 인터넷접속, 총회 홈페이지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다.

대회 마지막날인 6일 채택된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교육·봉사대회 선언문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총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21세기를 향한 선교·교육·봉사"라는 주제로 '선교·교육·봉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지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한 교회지도자들의 회개운동이며 교회개혁의 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동안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먼저 감사한다. 일제 탄압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였고, 한국전쟁과 국토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였고, 정치와 역사의 변천 속에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능적 대행물의 발달과 안일한 선교·교육·봉사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성장에 심각한 저해가 됨을 회개한다.

특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회 형태로 개혁되어야 하며, 사회발전으로 인한 제반 사회병리현상에 대하여 치유자가 되어야 하며, 분리와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고 화평과 연합의 새로운 물결의 논리로 전환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금번 대한예수교장로회의 5,800여 교회, 210만 성도를 대표하여 '선교·교육·봉사대회'에 참석한 지도자 3천

여 명은 한국교회의 지난 날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현재 우리교회의 자리를 직시하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천년을 위한 교회상을 정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현대평양시대, 21세기를 열어갈 교회로서 1만 교회 4백만 신도 운동에 모든 교회가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2. **세계화의 시대, 국경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선교의 기회로 활용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3. **과학 기술 정보 시대를 맞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영성적 교회교육을 준비하여 미래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4.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며 사고가 기계화되어가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전인적 영성교육, 인간화를 지향하는 윤리교육을 정립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5.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대망하면서 통일을 위한 화해와 나눔을 실천하며,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지양하고, 사회적 지역주의와 세계적 긴장을 극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6. **우리교회는 사회를 외면했던 지난날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교회가 되었음을 반성하며, 성장구조에서 성숙구조로 교회가 전환되어야 하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96 홍해작전 현장스케치

“기도로... 능력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 홍해작전 개시 직전인 새벽 4시 30분, 참모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을 깨운다.



▲ 저희들도 왔어요. 저희도 홍해작전에 왔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 등에 업혀서 왔지만 새 예배당 지으면 우리가 추억될 거예요.”



마음과 영으로 찬송(왼쪽)과 기도(위)를 드리며



▲ 빵을 떼며 성도의 교제도

새벽기도회 후 간단한 먹거리가 마련된 교회 앞마당은 친교의 장으로 변한다.

홍해를 건너는 안산발 대절버스

6교구 안산다락방 식구들은 버스까지 대절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96 홍해작전 주력부대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9	10	11	12	13	14	15
교구	전체교구	5·6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3·4교구	5·6교구
찬양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매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교회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사랑부	유치부
전도회	베드로	루디아	바울	에스터	모세	한나	마리아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16	17	18	19	20	21	22
교구	전체교구	7·8교구	9·10교구	11·12교구	1·2교구	3,4,5,6,7,8	1,2,9,10,11,12
찬양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매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교회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사랑부	유치부
전도회	요한	에스터	베드로	루디아	바울	모세	한나

23일 (주일)은 승전감사의 날(새벽기도회 / 전교인 총진군, 찬양예배 / 승전감사예배)

■ 목회자·교우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지난 7일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 세미나를, 8일에는 강남노회 영동교회 헌당식의 설교를 각각 담당했다.
- 김상철 집사는 15일에 한미우호협회 6월의 축제를 미대사관저에서 주재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심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명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강**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3.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4. 한국교회의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